

전국 상하수도인이 함께 한 축제와 정보교류의 한마당!

WATER KOREA와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

2004 WATER KOREA 행사는 그 규모만큼이나 지자체 공무원부터 기업체 및 학계 관계자까지 전국의 상하수도 관련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최대의 축제였다. 그러나 행사의 주최인 협회이외에 전시회, 세미나 등 자신들이 맞은 각 분야에서 단 4일간의 이번 행사를 위해 지난 봄부터 착실히 준비해온 그들이 없었다면? 이제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끈 원동력이 되었던 그들의 땀과 노력에 대해 들어보자!

“가족과 함께하는 행사” 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이운영 기술부장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2004년 3월 우리시가 행사개최지로 결정된 후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행사 전담팀을 구성, 참가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행사장간 이동버스 제공, 임시주차장 및 체육행사장 조성 등에 관해 협회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갖고 행사를 준비했다.

특히 행사기간 내에는 현장시설물 등을 점검하고 이용 불편을 고려하여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등 ‘가족과 함께하는 행사’ 라는 주제 실현을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했다. 올해 대전에서 열린 WATER KOREA는 3회째를 맞는 행사로서, 참가객이 2만명을 훨씬 넘어 참여업체로서는 각종 기자재, 신기술·공법의 홍보의 장이 되어 각 업체의 이미지 홍보에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많은 참가객들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30억 정도)한 바 있으며, 특히 공무원들의 참관이 많아 기자재의 품질비교와 신기술의 습득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

WATER KOREA는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상하수도 기자재 전시회는 전문 전시행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학술발표회는 실무에서 적용되는 각종 연구논문이 발표되어 상하수도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앞으로 본 행사와 연계하여 전국의 공공기관, 업체, 학교 등지에서 종사하는 상하수도인들의 화합과 친교에 촉매제가 되는 연계행사

를 보다 특성화하고 특히 더 많은 외국의 업체 및 상하수도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신경을 써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논문 발표 수, 등록인원 사상 최대 “보림”



현인환 교수
대한상하수도학회/단국대학교

WATER KOREA는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다. 회가 거듭될수록 지난 행사들에 비해서 내용이 다양해지고, 진행도 완숙해 지면서 벌써부터 내년의 광주 WATER KOREA 행사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많은 상하수도인은 물론 일반시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 만족스러운 행사였다고 생각된다.

세미나 및 학술대회는 행사주체들이 서로 준비에 많은 노력을 하여 특정한 어려움은 없었다. 다만 이번 행사에서는 학술행사장과 전시장이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행사 주최측에서 셔틀버스를 준비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으나, 몇 십분 잠시 짬을 내어서 두 행사를 참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행사장과 세미나장을 왕복하는데 약간 불편을 드렸던 점은 무척 죄송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가장 많은 논문발표 수와 등록인원수를 기록하였다. 이는 추계학술대회가 상하수도를 전공하는 전문가들에게 중요한 정보교환과 토론의 장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성과는 상하수도에 관한 WATER KOREA 행사가

전시회와 학술행사를 동시에 개최하여 한 장소에서 많은 경험을 나눌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된 요인이라 생각되며 WATER KOREA 행사의 효용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결과라 하겠다.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기획한 미국, 일본 등의 국제전문가들의 발표를 위한 International Session은 매우 호응이 좋아서 앞으로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 학술행사에서도 일부의 행사가 별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 꼭 참석해야 할 관련 전문가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전부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은 내년의 행사에서는 개선될 필요가 있는 점이라 생각된다.

학회에서는 전통적인 학술발표회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상하수도의 현안문제 및 장래의 발전방향을 토의하는 상하수도포럼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토론회의 장을 통하여 정부, 산업계 및 학계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서 진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서로 공동된 관심사를 개발하고 참여하여 토론할 수 있는 계기의 마련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WATER KOREA 행사와 “동반 성장”을 기대



정태희 사장
(주)삼진정밀

“삼진정밀이 2년 연속으로 회원 선정 최우수 부스상과 최다관람객 유치상을 받은 것은 모두 직원들의 승부근성 덕분입니다.”

2년 연속 2관왕을 차지한 삼진정밀 정태회사장은 수상소감을 모두 함께 맘을 흘린 직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실제로 이번 전시

회에 14개 부스를 오픈한 삼진정밀의 고객관리는 사실 특별했다. 부스를 구경하러오는 참관객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품의 특징과 우수성을 설명하는 열성이 남달랐기 때문이다.

한편 정 사장은 매년 WATER KOREA에 적극 참가, 신제품을 발표 빠르게 선보이며 이 행사와 같이 성장을 하고자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였다.

● 참관객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2004 WATER KOREA에 참여한 전시업체들은 한결같이 주요 발주처인 지자체 공무원의 참관율이 높아 업체 이미지 및 제품 브랜드 홍보에 최적의 장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전시회를 참관했던 공무원들 역시 나날이 발전되고 있는 환경 신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산교육의 장이 되는 것 같아 매우 유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최 3년째를 맞은 WATER KOREA가 여전히 외국 업체 및 외국인 바이어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것은 앞으로의 행사 방향 설정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외국인 참여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소한 불평과 비판이라도 보다 나은 내일의 행사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행사장을 누비며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박진기 주임 _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서울의 수도물을 브랜드화시킨 '아리수'의 전국적인 홍보의 장으로 심본 활용했다.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도 부스를 돌며 업체 관계자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신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제품 사진촬영도 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나 또한 동파방지 계량기 제조회사와 2시간가량 대화하면서 발전된 환경기술을 피부로 느꼈다. 따라서 WATER KOREA는 공무원들이 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산교육의 장이 된다는 점에서 유용한 행사라는데 이의가 없다. 그러나 지자체간의 과열 경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업체 전시관이 위축되는 점 등은 고려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김세은 주임 _ 온데오 데그레몽

서울에서 열리는 환경기술전과 WATER KOREA에 해마다 같이 참여하고 있다. 환경산업의 특성상 발주처가 대부분 지자체여서 WATER KOREA가 환경기술전에 비해 관공서와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훨씬 잘 수행하는 것 같다. 외국계 다국적 기업인 우리 입장으로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국내 바이어들에게 업체 브랜드 이미지를 확보하는 데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한다.

남효승 사무관 _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올해 처음 참여했는데 정말 놀라웠다. 처음 참여한 관계로 부스에 많은 투자를 못한 게 다소 아쉽다. 올해는 인천시의 전체적인 홍보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내년부터는 인천 상수도의 특화된 장점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박기원 대리 _ (주)뉴보텍

WATER KOREA 참여를 통해 제품 홍보 및 거래처 발굴에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 이번 행사가 끝난 후 그동안 거래가 없던 4개 지자체와 현재 거래 상담중이며 결코 희망적일 것 같다.

강석표 연구원 _ (주)한일시멘트 중앙연구소

우리 회사는 시멘트회사라는 인식이 강한데, 사실 2차 제품과 보수·보강공법의 매출비중이 더 높다. WATER KOREA는 공무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수요자에게 적극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환경업체의 해외시장 개척과 신기술을 보유한 해외업체와 비교 경쟁을 통한 기술력 개발을 위해서는 WATER KOREA의 '국제화'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한다.